용산구 한남동

완전체로 돌아온 '2PM'… 우영, 솔로가수로도 매력 방출

2008년 9월 데뷔한 2PM은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보이그룹이다. 데뷔 당시에는 준수(준케이), 닉쿤, 택연, 우영, 준호, 찬성, 재범 등 7인조 그룹이었지만 2010년 2월 재범이 탈퇴한 이후 6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2PM'이라는 그룹명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오후 두 시에 듣기 좋은 음악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PM'은 기존 아이돌들에게서는 쉽게 볼 수 없던 애크러배틱 댄스 등을 선보이며 데뷔 초부터 인기를 끌었다.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싱글 데뷔곡 '10점 만점에 10점'으로 2009년 각종 가요프로그램 1위, '2009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 올해의 가수상, 2009 'KBS 가요대축제' 올해의 노래상 등을 받으며 2PM은 인기 가수로 거듭났다.

두 번째 싱글 앨범 발매와 더불어 카리스마 넘치는 안무와 노래로 무대를 장악하며 '짐승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2PM은 이후에도 'Again&Again' '니가 밉다' '온리 유(Only you)' 'Heartbeat' '미친 거 아니야?'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성공한 아이돌 그룹 중 하나로 꼽힌다.



버밀리안하우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270-4

2PM 멤버 중 우영(본명 장우영)은 유년 시절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춤에 감동받아 춤을 취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2007년 JYP엔터테인먼트 공개 오디션에서 1위에 올랐으며 오디션 당시 박진영은 "이 친구는 안 되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할 정도였다. 우영은 약 1년간의 연습생 생활 끝에 2PM의 최종 멤버로 발탁돼 데뷔했다.

팀에서 서브보컬을 맡고 있는 우영은 안정적인 실력과 귀에 꽂히는 음색으로 데뷔곡부터 대부분의 2PM 노래에서 도입부를 맡고 있다. 우영은 팀 내에서 부드러운 음색과 거친 음색 모두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영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MBC every1 '아이돌군단의 떴다 그녀!'에서 자신의 장점인 춤으로 매력을 뽐내기도 했으며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일명 '싼 티 댄스'를 보여주며 예능감을 선보였다.

우영은 솔로가수로서도 매력을 방출했다. 2012년 발매한 첫 번째 솔로 앨범 '23, Male, Single'의 타이틀곡 'Sexy Lady'로 활동하며 인기를 끌었다. 2015년에는 일본에서 솔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일본에서도 인기를 증명했다. 또, 2017년 4월 일본에서 발표한 솔로 앨범 'Party Shots'으로 '오리콘 위클리차트' 2위에 올랐으며 일본 전국 6개 도시, 11회 공연의 솔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2월 말 제대한 우영은 JTBC '아는 형님'과 유튜브의 '박막례 할머니' 채널과 SBS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에 출연하며 활동 재개를 알렸다. 이후 '문명특급'의 '컴눈명'(다시 컴백해도 눈감아줄 수 있는 명곡의 줄임말) 특집에서 2PM 완전체로 출연해 '우리집'으로 엔딩무대를 장식했다.



이후 2PM은 6월 28일 정규 7집 '머스트(MUST)'와 타이틀 곡 '해야 해'를 발표하며 약 5년 만의 완전체 컴백을 알렸다. 이번 컴백은 지난해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우리집' 역주행 돌풍에 이은 기대작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K팝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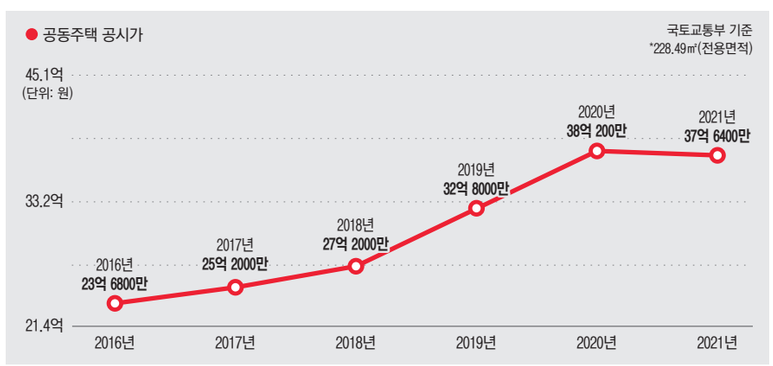
특히 '해야 해'는 우영이 작사, 작곡에 참여해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전했으며 중독적인 멜로디와 묘한 끌림을 표현한 가사가 매력적이다.

완전체로 돌아온 2PM의 멤버이자 솔로가수로서 우영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이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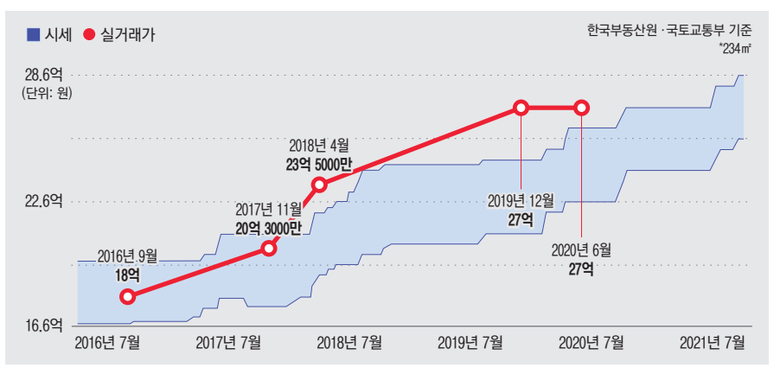
제이하우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7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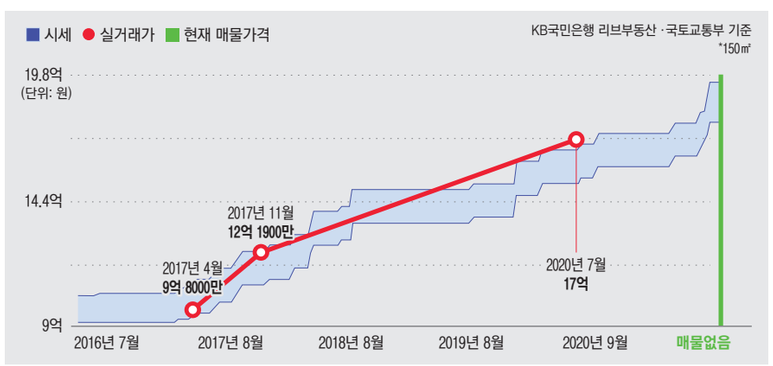
현대하이페리온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5



한남힐스테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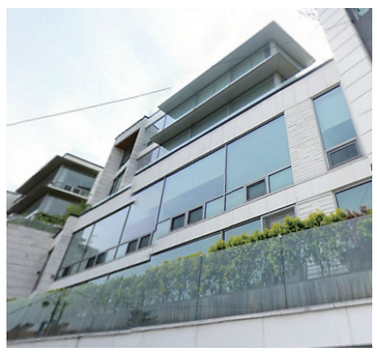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7



서범식 현)맥쿼리자산운용 대표이사



서범식 맥쿼리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워싱턴대학교에서 생물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맥쿼리그룹에 입사해 맥쿼리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근무했다. 한국·홍콩·싱가포르·일본 등의 유료도로, 철도, 공항, 신재생 에너지, 폐기물, 석유화학, 도시가스, 지역난방, 케이블 방송, 수처리 등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자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2006년 3월 맥쿼리자산운용의 한국대표 인프라 공모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의 상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8년 12월 맥쿼리자산운용 운용총괄 전무가 됐고 2019년 10월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2002년 호주 맥쿼리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안재욱 현)배우 겸 가수



배우이자 가수인 안재욱은 서울예술전문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했다. 그해 1994년 MBC 23기 공채 탤런트로 발탁돼 드라마 '눈먼 새의 노래'로 데뷔했다. MBC에서 '짝' '전쟁과 사랑' '자반고등어'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던 그는 1997년 MBC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에서 반항적인 이미지의 가수 강민 역을 맡아 고(故) 최진실과 호흡을 맞췄다. 당시 그는 '안재욱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전성기를 맞았다. 이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면서 안재욱은 1세대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드라마에서 불렀던 'FOREVER'로 정식 데뷔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2009년부터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올해 5월 종영한 tvN드라마 '마우스'에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기도 했다.



심지연 현)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심지연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79년부터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1982년부터 경남대학교 법정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한국정당학회 회장, 평화문제연구소 북한문제연구회 연구위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문화재청 근대문화분과 문화재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심의위원회 위원,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경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된 그는 2018년부터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대모산도시자연공원 마무리 정비사업 내달 착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는 민선 7기 정순균 구청장의 핵심공약인 대모산도시자연공원 마무리 정비사업이 이르면 내달 착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산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 정비사업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이에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

구는 대모산의 자연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모산과 구룡산을 잇는 3㎞ 등산로 중 일부 구간에는 나무계단과 데크를 설치한다. 나무뿌리 융기나 팬 곳으로 인해 울퉁불퉁한 노면을 평평하게 정비한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등의자와 정자도 배치한다. 경관보존을 위해 토지보상지역 내 무단경작지는 철거할 예정이다.

한편 정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압구정·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해당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3호선 연장사업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

경기도 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달 9일 시청 시장실에서 수지구 신봉동 주민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3호선 연장 사업은 2019년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고 3호선을 연장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와 3호선 노선 연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4개 기관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비롯해 철도사업 계획 수립은 매우 민감한 사항임을 양해해달라"며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소통 채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3호선을 수원까지 연장하면 약 9만 3000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3개 시 모두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으로 분산형 차량기지 3만평의 부지를 경기도에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활용가치 없는 토지 매각하고 시 재정 증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는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산 보존과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처분해 시 재정을 확충하고 실소유자의 토지 활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군부대가 관행적으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시유지 1만 6907㎡를 96억원에 매각했으며 관내 보존부적합 및 활용가치가 없는 시유지 또한 214억원에 매각했다.

시는 성사혁신지구 인근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가 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현재는 용도가 폐지된 주교4 소공원 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교환을 추진해 상호 간 재산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시유지 현황을 조사해 군부대·교육청·소방서 등이 무상점유해 사용하는 시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국가는 시유지를 포함한 공유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국가 등이 무상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고민하고 노력한 결실"이라며 "재산관리에 있어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